



광주·전남 민주가족 합동 세배 광주와 전남지역 재야 원로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2016 병신년 민주가족 합동세배'가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무진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통폐합 초중고 10년간 174곳 '전국 최다'

정부 새 권고안 적용시 416곳 추가...전남학교의 46%

전남도교육청 "지역사회 동의 없이 추진 않겠다"

최근 10년간 전국 643개 초·중·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만 174곳이 폐지되거나 개편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초등학교 본교와 분교 483곳이 폐지됐다. 중학교의 경우 88곳이, 고등학교는 34곳이 사라졌다.

지역별로는 전남 초·중·고 174곳이 폐지되거나 개편돼 가장 많았다. 경북의 경우 초·중·고 153곳이 폐지되거나 분교로

개편됐으며 강원과 충남에서도 각각 73개, 73개 학교가 통폐합돼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며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교육부의 권고 기준은 읍·면·도 서·벽지 등 농·산·어촌 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였지만 올해부터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

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적용 기준이 바뀌었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 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는 416곳(초·중·고)으로 확대된다. 전남 전체 898개교(초등 493·중등 260·고등 145) 가운데 46.3%에 달한다.

인센티브도 늘어났다. 분교 통합 때 기존 10억원을 지원하던 데서 학생 수별로 20~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권고 기준이 실제 지역 교육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광주·전남 교육청 분석이다. 당장,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방침을 '권고' 기준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은 기존에도 교육부의 권고 기준과 달리,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면 1학교', '1도서 1학교', '병설·통합 학교' 등은 제외하는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효율성, 교육 여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학부모·지역주민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역사의 현장 잇는 '오월길' 이달 착공

광주시 사적지 27곳 연결...10월말 준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인 '오월길'로 새롭게 탄생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27곳을 연결하는 '걷고 싶은 오월길' 조성사업을 이달 착공, 10월 말 준공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2억7000만원이 투입될 오월길 조성사업은 5.18 민중항쟁의 역사가 서려 있는 사적지를 따라 5개 코스로 나눠 추진된다.

햇불·희생·광장·열정·영혼 등 5개 코스로 나뉘며 5.18을 상징해 51.8km로 조성된다.

5·18이 처음으로 타올랐던 햇불 코스는 전남대 정문에서 옛 시외버스터미널, 옛 전남도청인 민주광장까지를 잇는 6.7km다.

희생자가 발생했던 현장인 희생 코스는 전남도청에서 남동성당, 주남마을, 기독교병원 등 8곳, 21.5km로 가장 많고 가장 길다.

광장코스는 광주공원, 농성광장, 5·18 기념공원 등 6곳, 총 11.1km이며 열정코스는 5·18 기념공원에서 전남대 정문, 무등경기장 등 3곳을 거치는 5.9km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영혼코스는 전남대 정문과 5·18 국립묘지, 광주교도소 등 3곳에 12.5km다.

양동시장 등 사적지 18곳에는 상징물이 제작·설치되고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알리는 설명문과 350여개 안내판이 오월의 의미를 알린다. 양동시장에는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모습이, 광주기독병

원 앞에는 현형을 위해 길게 늘어선 시민의 모습,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도청에는 격전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진다.

사적지 주변 가로등 줄을 활용한 사인(Sign)도 만드는 등 5·18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도보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이밖에 대인 지하보도, 금남로5가역에 설치된 방문자센터 환경 개선과 함께 5·18 관련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된다.

오월길 프로젝트는 인권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브랜드 발굴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월길 조성은 민주·인권·평화 도시 구현이라는 광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역사체험 현장,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

'전두환 추징금' 57억 검찰, 소송으로 첫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해질 18:10
 일출 08:57 일몰 21:14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	4/17	보성	0/13
목포	6/14	순천	3/14
여수	6/12	영광	5/15
나주	3/16	진도	7/16
완도	5/14	전주	3/15
구례	-1/13	군산	1/14
강진	4/15	남원	-1/15
해남	5/16	속산도	7/12
장성	2/15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부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부	남동~남	1.0~2.0
남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1.0~2.0
	앞바다(서)	남동~남	1.0~2.5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0/17	14/16	3/5	-2/2	-2/5	-2/6	-1/9

광주·전남 모레까지 겨울비

15일부터 기온 '뚝'

광주·전남지역에 사흘간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려 언 땅을 녹이겠다. 기온도 당분간 큰 폭으로 오르겠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1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지역과 지리산 부근은 20~60mm, 광주·전남 내륙지역은 10~40mm다. 특히 12일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

동·번개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13일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다. 11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17도, 나주 16도, 목포·순천·광양 14도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3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13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5일부터 다소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인문계고 신입생 등록 오늘까지

'고교 신입생들, 11일까지 입학 등록 하세요.'

광주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입학 등록을 11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47개 일반고 신입생은 남학생 8184명, 여학생 8104명 등 총 1만6288명으로, 배정 받은 학교에서 안내받은 입학 절차에 따라 11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도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실 연휴가 길고 고교 신입생 입학기간과 겹쳐 압박하고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일 광주 89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일반고 추천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sure.or.kr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의 수출, 수입을 책임지며 함께 성장해온 K-sure. 수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당신의 무역이 위태로울 때, K-sure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켜드립니다.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본 광고는 제3회 K-sure 대학생 광고모집 장려상 수상작 (실지대학교 이예현, 이지수)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